

  <b>제주특별자치도</b>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4. 3. 29.(금) <b>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b>		
<b>농업기술원</b>	<b>보도자료</b> PRESS RELEASE	친환경연구과장	강상훈	☎760-7350
		업무담당자	현희정	☎760-7364
		홍보담당자	김미리	☎760-7514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## 새로운 감귤 해충 ‘산동날개매미충’ 예찰 당부

- 기후변화로 해충 발생 양상 달라져...방제정보 리플릿 제작 배부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고상환)은 최근 친환경 감귤원에 피해를 입히는 ‘산동날개매미충(임시명칭)’에 대한 세심한 예찰과 적절한 방제를 당부했다.
-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감귤 해충 종류, 발생 시기, 피해 등을 조사했으며, 새로운 해충 5종\*을 포함해 감귤에 발생하는 해충 60종을 확인했다.
  - \* 두줄민달팽이, 식나무가루이, 산동날개매미충(임시명칭), 굴큰별노린재, 시골가시허리노린재
- 이 중 ‘산동날개매미충’은 2012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으며, 제주지역에서는 2017년 비농경지(산림)에서 발견된 후 2019년 친환경 감귤원에서 발생했다.
- 산동날개매미충의 성충과 약충은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고 배설물로 인한 그을음 증상을 유발한다. 성충에는 톱니모양의 산란기관이 달려있어 가지와 잎맥을 파내고 산란하며 산란 피해는 가지마름, 고사, 부러짐 등으로 나타난다.
  - \* 산동날개매미충(임시명칭): 노린재목 큰날개매미충과의 산림해충. 수컷 성충의 크

기는 7.5~7.8mm, 암컷은 8.3~8.8mm이며, 날개는 짙은 갈색~검은색. 노령 약충은 선녀벌레 약충과 비슷하며, 머리부터 앞가슴 등판에 6개의 반점이 있다. 연 2세대 발생하며 가지나 잎맥에 산란된 알로 월동한다. 월동한 알은 4월에 부화해 7월에 성충이 되고 8월부터 산란하기 시작한다. 8월에 산란한 알은 7일 후 부화해 9월에 성충이 되고, 12월까지 관찰된다. 9월 이후 산란한 알들은 부화하지 않고 월동한다.

□ 현재 도내 발생 및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나 일부 관리가 소홀한 과수원과 친환경 감귤원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.

○ 황색끈끈이트랩을 1.5m 높이에 설치해 성충의 예찰 및 방제에 이용하고 산란한 알은 전정 등을 통해 제거하며 고삼, 님추출물 등의 유기농업자재를 어린 약충시기(4, 8월)에 살포해 방제해야 한다.

□ 농업기술원은 지속적인 예찰과 동시에 발생지 및 주변지역에 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한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, 산동날개매미충의 발생정보와 방제방법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고,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누리집\*에 게재할 예정이다.

\* 누리집: <https://agri.jeju.go.kr/agri/index.htm>

□ 현희정 농업연구사는 “매미충류는 과거 산림에서 서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, 기후변화에 따라 서식 범위가 넓어지면서 농경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” 며 “신속한 방제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